교과부 "두발·복장 학교가 결정" 시교육청 "인권조례 제동" 반발

시행령 개정 추진 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두발·복장 등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서울·광주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제동을 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3월 인권조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을 부정하는 법개정에 반발, 서울·경기도 등 진보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6개 교육청과 연대해 법개정 반대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듣는 내용, 학칙 제·개정시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고시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1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과부의 교육법 개정안은 구시대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을 불과 1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교과부가 법개정에 나선 것은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서울·전북·강원 등 전국 6개 교육청 진보교육감들과 연대해 법개정 반대운동에 나서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21일 정부의 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광주 일선 학교는 교과부와 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갈등조짐을 보임에 따라 새학기 교단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 고교 교장은 "학교는 교육청에 소속돼 있어 현장에서는 일단 교육청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교육청, 교과부 입장이 달라 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중학교 교장은 "교과부와 교육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일단 학생인권 조례안을 토대로 학칙을 개정하겠지만, 법개정안이 발효되면 또 다시 학칙을 손봐야 하는 등 학생생활 지도 등 학교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새학기 중2부터 '복수담임제'

초·고교는 학교장 자율…정규·경력직 교사 배치

다음달 새 학기부터 중학교에 우선적으로 학급 담임교사가 2명인 '복수담임제'가 도입된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학교는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 특히 2학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수담임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는 전 학년 중에서 2학년이 학교폭력에 취약하다는 현장 의견과 2학년의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 선·후배로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실태, 교사 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복수담임을 지정할 경우 소요예산 등을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초교는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을, 고교는 학생 수가 38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각각 복수담임을 자율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복수담임 운영 방식은 2명의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방법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다. 담임 간 역할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분담한다.

정규 교사가 우선적으로 담임을 맡도록 하고, 복수담임이 지정되지 않은 학급에는 원칙적으로 정규교사, 경력이 오래된 교사를 배치한다. 현재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 중 일부를 담임교사로 추가 지정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보직교사, 기간제교사 등도 복수담임 지정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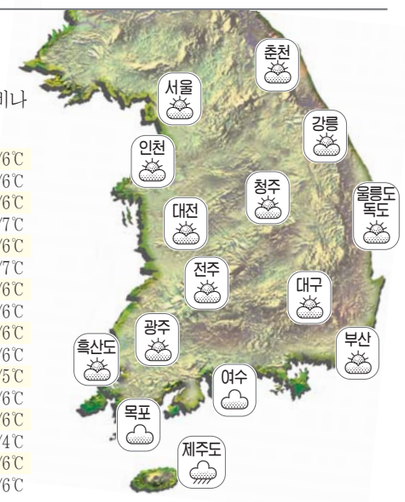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13분 해짐 18시 20분 달뜸 06시 23분 달짐 17시 49분

흐리고 눈·비

대체로 흐리고 한두차례 비나 눈이 오겠다.

광 주	구름많음	-1/6℃
목 포	흐림	-1/6℃
여 수	흐림	1/6℃
나 주	구름많음	-3/7℃
완 도	흐림	-1/6℃
구 례	구름많음	-4/7℃
강 진	흐림	-2/6℃
해 남	흐림	-3/6℃
장 흥	흐림	-3/6℃
순 천	구름많음	-1/6℃
영 광	구름많음	-3/5℃
진 도	흐림	-2/6℃
전 주	구름많음	-4/6℃
군 산	구름많음	-2/4℃
남 원	구름많음	-7/6℃
흑산도	흐림	2/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1.0~1.5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5~2.5m
먼바다	북~북동	1.5~2.5m

	밀물	썰물
목포	01:37 14:15	06:57 19:29
여수	09:07 21:09	02:33 15:0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2(수)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날 씨						
최저/최고	2/11	4/11	3/9	2/6	-1/5	-2/6

광주 초·중 올해도 진단평가 안본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도 초·중학생 대상 전국단위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치르지 않는다.

20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는 다음달 8일 실시되는 전국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같은달 5일부터 8일까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부진 영역을 파악, 지도하기 위한 별도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일제평가가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전남교육청은 지난해와 같이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진단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전교육청이 주관한다. 학년이 바뀐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는 3~6학년, 중학교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교원 2033명 인사

전남도 교육청이 20일 초·중등 교원 2033명에 대한 3월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명단·광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이번 인사에서 초등교사는 576명, 중등은 1457명(68.7%)이 전보됐다. 신규 교사의 경우 초등은 148명, 중등은 176명에 달했고, 수석교사는 유치원 1명, 초등 25명, 중등 46명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광주시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20일 자동차세 장기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작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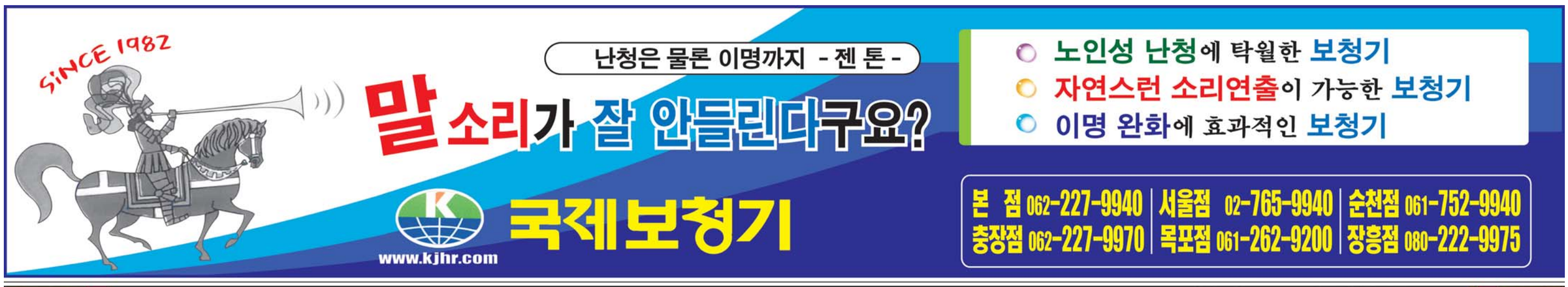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소득·저소득층 교육비 격차 6.3배

양극화 갈수록 심화

교육비 지출액이 고소득층에서 급증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선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한국 사회지표 변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총지출에서 교육비 지출 비중은 1982년 7.2%에서 2005년 11.8%, 2010년 13.3%로 꾸준히 상승했다.

문제는 소득계층별로 교육비 지출 비중이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2.3%(31만9420원)→2008년 14.1%(46만847원)→2010년 15.1%(54만2946원)으로 계속 확대됐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교육비 비중은 2003년 7.1%(6만541원)→2008년 8.2%(8만9907원)→2010년 7.4%(8만5735원)으로 7%대를 유지했다. 2003년 고소득층(5분위)의 교육비는 저소득층(1분위)에 비해 4.9배 많았으나 2010년에는 6.3배까지 확대됐다.

/연합뉴스